

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안식신학, 적어도 창조 안식과 안식일의 준수에 있어서 칼빈이 지녔던 유연함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버나드와 칼빈의 신비주의

7장에서 버나드와 칼빈의 유사성을 다룬 후에 칼빈의 신비주의에 많은 지면이 할애되었다(236-251). 여기에서 '신비주의'라는 용어를 저자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아쉬운 것은 신비주의에 대한 정의 없이 칼빈의 신비주의를 논하는 것은 칼빈에 대한 저자의 호의적인 태도를 증대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칼빈에게 있어서 신비적 요소란 버나드와 유사하게 구원의 신비성을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에서 찾았다는 점이 정확하게 지적된 것이 사실이다. 구원을 이성적으로 논하는 것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것인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칼빈의 의도였음을 저자는 수차례 올바르게 강조한다(240-245). 그러나 "칼빈의 신비주의는 구원론에 나타나는 신학적 접근만으로 대표되지 않는다. 그의 신비주의는 신학적 해설을 통한 신비신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개념을 통한 체험적 신비주의로 나타나기도 한다."(245) 라는 표현은 사실상 칼빈을 중세의 다양한 신비주의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차별화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표현임이 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표현은 오히려 칼빈이 여러 신비주의자들 가운데 (동일한 이성적 가르침을 공유하는 자로서) 특별한 종류의 체험을 지닌 자로 오해될 소지를 다분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칼빈의 신비주의' 보다는 '칼빈의 경건에 드러난 신비성'이라는 표현이 저자의 본래 의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을 제기해 본다.

아가페와 에로스

안데스 니그렌 (Anders Nygren) 지음
고구경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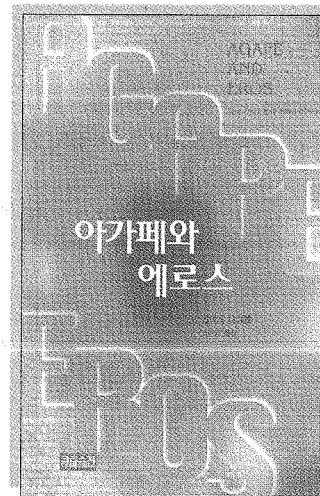


안데스 니그렌은 스웨덴 룬트(Lund) 대학을 중심으로 구성된 룬트 학파의 대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스웨덴의 룬트 학파는 루터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간과될 수 없다. 북유럽을 대표하는 3개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는 루터교 전통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신학자든 철학자든 20세기 중반 이전에 활동한 이 세 나라 출신들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루터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만큼 루터라는 인물은 북유럽의 3개국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니그렌 역시 이런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아마도 루터는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근본 동기였을 것이다. 그가 루터의 이신칭의와 십자가 신학이라는 관점을 통해 기독교의 사랑 개념이 아가페(agape) 즉 무동기적 사랑이라고 간파했다고 판단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니그렌은 이 무동기적 사랑 즉 신 중심적 사랑을 의미하는 기독교 사랑 개념인 아가페와 대등한 평행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대립관계에 있는 종교적 사랑 개념으로서 동기적 사랑 즉 인간중심적 사랑을 의미



하는 헬라 철학(종교)적 사랑 개념인 에로스(eros)를 상정한다.

니그렌에 의하면 기독교 역사는, 최소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의 기독교 역사는 순수 기독교적 사랑 개념인 아가페와 철저히 비기독교적인 사랑 개념인 에로스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장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저자가 아가페와 에로스를 우열관계 즉 아가페가 더 고상하고 에로스는 덜 고상하다는 식으로 관계를 설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우리는 저자가 경고하는 대로, 아가페를 천상적 정신적 사랑과 같은 고상한 사랑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에로스를 지상적 육체적 사랑이라는 다소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사랑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두 사랑 개념은 출발점이 다른 전혀 별개의 것으로 우열을 가리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이 두 개념은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상에 놓여 있다.

니그렌은 무동기적인 사랑 개념인 아가페를 기독교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근본적으로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즉 하나님께서 아무런 동기 없이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체할 수 있는 길로써 아가페를 제시하셨다는 것이다. 죄인을 향한 이 무동기적 하나님 사랑에 근거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상의 가치나 중요성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무차별적으로 인간에게 베풀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까지도 사랑하셨는데 바로 아가페이며, 이것만이 하나님과의 교체(Gottesgemeinschaft)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라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핵심 교리이자 기독교의 2대 강령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인 아가페 개념의 결정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바르게 이해했다. 즉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시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사랑 즉 죄인을 아무런 동기 없이 사랑하시는 신 중심적 아가페라는 것이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울은 값없이 주어지는 믿음(pistis)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했다고 니그렌은 강변한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 신학에서 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기독교적 사랑 공식을 제대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랑 개념의 순수성이 어느 정도 변형되고 약화되었다고 니그렌은 평가한다. 즉 요한 신학에서 헬라 철학적 요소가 어느 정도 기독교의 사랑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유입된 것으로 본다.

니그렌에 따르면 이러한 요한 신학은 앞으로 교회사에 나타나게 될 아가페 개념의 설명을 위한 에로스 개념의 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니그렌은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신학과 신학자들의 기독교 이해를 세 종류의 사랑 개념으로 분류한다. 이 세 유형은 기독교적 개념인 아가페와 헬라의 철학적 개념인 에로스와 유대교적 개념인 노모스(율법)이다. 첫째 개념만이 신 중심적인 순수 기독교적 사랑 개념이며, 둘째와 셋째 개념은 인간 중심적이고 따라서 비기독교적인 사랑 개념이다. 저자는 마지막 셋째 유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신학을 이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즉 마르시온(Marcion) 이단과 교부 이레니우스(Irenaeus)를 순수 기독교 사랑 개념인 아가페의 대표자로 분류하고, 영지주의자들과 알렉산드리아학파를 기독교를 에로스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 대표자들로 간주하며, 속사도 교부들과 터툴리안(Tertullian)을 유대교적인 노모스 유형으로 분류한다.

니그렌은 터툴리안에 의해 유대교의 노모스 동기가 기독교의 아가페 동기와 절충하게 되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부인 오리겐에 의해 헬라의 에로스 동기가 기독교의 아가페 동기와 절충하게 되었다고 본다.

에로스 개념과 아가페 개념을 갈등과 충돌 개념으로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상에 있는 두 사랑 개념인 기독교적 아가페 개념과 헬라적 에로스 개념을 종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데, 그 대표자들이 아타나시우스(Athanasius)와 캅바도기아(Cappadocia)의 세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인 니사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이다.

니그렌에 의하면 이 종합의 시도는 어거스틴(Augustine)의 신학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어거스틴의 사랑 개념인 카리타스(caritas)는 바로 아가페와 에로스의 종합이다. 이것을 니그렌은 종합의 1단계로 보고, 중세 시대의 신비주의와 스콜라주의(Scholasticism)를 종합의 2단계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종합을 에로스 동기에 의해 파괴한 것이 르네상스(Renaissance)이며, 아가페 동기에 의해 파괴한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니그렌은 주장한다.

어거스틴의 사랑 개념인 카리타스가 어떻게 두 평행적인 사랑 개념의 종합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중세 신학으로 연결되는지를 원자료에 근거하여 상세하게 제시하는 니그렌의 설명은 굉장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시작부터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아가페와 에로스 사이의 상관 관계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니그렌의 저술은 바로 감탄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론도 비판 받지 않을 만큼 빈틈없이 완벽한 것은 없다. 니그렌의 책 역시 이 점에 있어서 예외일 수 없다. 과연 비동기적 기독교 사랑 개념인 아가페와 동기적 사랑 개념인 에로스는 서로 만날 수도 또한 만나서도 아니 되는 평행적 개념일까? 아가페와 에로스가 만날 경우 아가페는 왜곡될 수 밖에 없는가? 모

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기독교적 수용성에서 볼 때, 그 두 개념이 영원한 평행선상에 있다는 것은 분명 니그렌이 자신의 설명을 위해 만든 인위적인 구조라는 공격을 피할 수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가페의 비동기성에 대한 니그렌의 지나친 강조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속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할 여지를 없애버린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니그렌이 주장하는 순수하게 비동기적인 것으로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어찌면 이런 점에서 비동기적 아가페 사랑이라는 니그렌의 가설은 기독교적 사랑을 표현하기에 불충분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 이외에도 니그렌의 성경에 대한 이해 역시 문제가 있다. 또한 니그렌이 파악한 루터의 사랑 개념이 그가 평가하듯이 순수 기독교적인 아가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어찌면 루터 역시 어거스틴과 같은 종합적 개념을 인정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더 정당할 것이다.

니그렌의 기독교 사랑 개념에 대한 분석은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충분히 일독할 가치가 있는 책이다.

번역자인 고구경 씨는 이 책을 매우 신중하게 번역한 것 같다. 한 단어를 동일하게 번역하지 못한 아쉬움은 거의 모든 번역서들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것이다. 때로 이런 일은 더 정당한 일로 판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언어의 상이성은 사상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습의 상이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